

우리나라 민족고전의 실태와 민족고전학의 건설에 대하여

최태권*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910년 즉 이조 봉건왕조 말까지 고전유산과 계몽기의 유산들을 민족고전이라는 범위에 포괄시킨다. 민족고전에는 자연현상의 개별적 측면으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사회현상의 각이한 측면들에 이르기까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의 사료들이 풍부히 담겨져 있다.

그런데 우리의 민족고전은 우리말로 쓰여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 다수가 우리의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먼 한문으로 쓰여 있다. 그리고 오랜 역사적 기간을 내려오는 과정에 전란과 화재로 불타버린 데다가 외래침략자들에 의해 약탈당하여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다.

민족고전이 아무리 귀중한 제보라 해도 그것이 대중에게 인식되고 이용되어야 빛을 내고 가치를 가진다. 그러려면 그 서사수단에 대한 완전한 파악과 함께 그것이 우리말과 글로 재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족고전학은 자기의 고유한 연구대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가진다.

첫째, 민족고전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데서 나서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둘째, 민족고전을 번역하는데서 나서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셋째, 민족고전을 옳게 평가하고 해제하는데서 나서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넷째, 민족고전의 서사수단으로 이용된 한자와 한문을 배우고 익히는데서 제기되

*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소장

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면하게 민족고전학의 연구지표를 옹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고전학의 연구지표는 어디까지나 민족고전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

주제어 민족고전, 이론실천적, 이조 봉건 왕조, 서사수단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우리 인민의 슬기와 지혜를 담은 수 만 종의 고전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예로부터 문화가 발전하고 책이 많은 나라라고 하여 이웃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를 ‘문헌지방’이라고 불러왔다.

일반적으로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의 고유한 문헌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문헌유산 ‘고서’ 또는 ‘고적’이라 하여 ‘옛날책’이라는 통속적인 말로 불려왔으며 그것을 학술적인 개념으로 정식화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 ○○○동지께서는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유산들을 단순히 옛날에 만들어진 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족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가 깃들어 있는 귀중한 재보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민족고전이라는 학술적 개념으로 정식화해주셨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옛날책으로 불려 오던 문헌유산이 과학적이며 학술적인 개념으로 정식화 되었다.

민족고전이란 지난 시기 민족이 창조한 가치 있는 고전유산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910년 즉 리조봉건왕조말까지 고전유산과 계몽기의 유산들을 민족고전이라는 범위에 포괄시킨다.

우리나라 민족고전을 어종별로 보면 한문, 국문, 국한문으로 된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부문별로 보면 력사, 어학, 문학, 철학 및 종교, 법학, 경제, 예술, 농학, 의학, 수학, 지리, 천문기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남겨놓은 가치 있는 민족고전은 어느 것이나 다 력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들이다. 민족고전에는 자연현상의 개별적 측면으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사회현상의 각이한 측면들에 이르기까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의 사료들이 풍부히 담겨져 있다.

자연과 사회현상의 개별적 측면들의 력사적 발전과정을 연구하고 서술하는 철학사, 경제사, 법제사, 어학사나 자연과학사와 같은 여러 분야의 부문사들은 민족고전의 사료들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을 연구의 출발적 전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고전을 발굴하고 번역 정리하는 것은 현 시기 부문사연구의 출발적 전제로 된다.

그것은 우리 민족고전의 구성상 특수성과 현 시기 민족고전연구 실태와도 관련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민족고전은 우리말로 쓰여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다수가 우리의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먼 한문으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오랜 력사적 기간을 내려오는 과정에 전란과 화재로 불타버린 데다가 외래침략자들에 의해 약탈 당하여 세계도처에 흩어졌다.

초보적으로 조사장악한데 의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수 만 종에 달하는 민족고전이 있는데 이 책들이 봉건시기에 많이 없어진데다가 리조 말기에 일본침략자들과 서유럽의 선교사들이 진귀한 도서들을 수많이 약탈해 갔다.

특히 일제가 40년간 조선강점기간에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약탈해 간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현재 일본에 가있는 책 가운데에는 『의방류취』, 『졸고천백』과 같은 희귀본들이 적지 않으며 북반부에 없는 귀한 책들이 많다.

일본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기타 서유럽에서 온 선교사들과 외교관들도 진귀한 책들을 수많이 수집해갔는데 이 책들이 지금도 대영박물관, 빠리박물관들에 보관되어있다.

이렇게 외국에 흩어져있는 민족고전들은 사료적 가치로 보나 문화사적

의의로 보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도서들이다.

한편 정상적인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한 우리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민족고전에 대한 선행시기 연구성과와 자료토대도 매우 미약한 형편이다.

지난 시기 민족고전의 이러한 실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부문사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과학기술분야만 놓고 보아도 도자기와 종이생산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날린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자기공업사와 제지공업사를 써놓은 것이 없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법제사나 경제사와 같은 부문사의 연구가 심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부문사연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것과도 관련되지만 주요하게는 이 부문의 민족고전들이 부문별로 번역·정리되지 못하고 자료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있다.

민족고전의 구성상 특성과 연구실태는 민족고전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정립하여 고전유산연구에서 나서는 학술적 문제를 리론화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다.

민족고전학은 각 분야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봉건시기 문헌들의 특징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학문들과는 달리 사회생활과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대상한다.

민족고전학의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민족고전학이란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기록 자료를 연구하는 고전문헌의 형성·발전과 고전유산의 수집, 감별, 정리, 해석, 평가에서 나서는 학술적 문제를 탐구하고 리론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고전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전문헌은 사회생활의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력사적으로 형성된 일체 기록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고전학의 연구범위도 넓은 폭을 가진다.

장구한 역사적 시기를 통하여 형성된 고전유산을 수집, 감별, 정리, 평가하는 데서 나서는 학술적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다른 과학 분야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민족고전학의 고유한 연구 분야이다.

민족고전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린접 과학은 언어학이다.

역사학은 사료를 다루는 학문인 것만큼 민족고전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역사학이 민족고전학과 맺어지는 밀접한 관계는 사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역사학에서 사회발전의 과정과 법칙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일 사료가 불충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면 역사상에 존재하였던 개개의 사실, 시간, 지점, 조건, 인물 등이 정확히 인식될 수 없으며 따라서 역사 발전의 과정과 법을 해명할 수 없다.

이처럼 인류사회발생발전의 과정과 그 합법칙성을 연구하는 역사과학은 사료를 전제로 하며 사료는 민족고전이라는 큰 바다 속에 잠겨있으므로 민족고전은 역사연구의 기초가 된다.

역사과학이 사료를 통하여 민족고전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 만큼 민족고전의 형성발전의 법칙성과 그 평가, 정리에서 나서는 이론실천적 문제를 해명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 민족고전학을 대신할 수는 없다.

언어학은 한문이라는 서사수단과 번역이라는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민족고전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언어학과 민족고전학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 수단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 민족고전이 한문으로 기록된 특수한 사정과 관련된다.

민족고전이 아무리 귀중한 재보라 해도 그것이 대중에게 인식되고 리용

되어야 빛을 내고 가치를 가진다. 민족고전이 대중에게 리용되자면 그 서사수단에 대한 완전한 파악과 함께 그것이 우리말과 글로 재현되어야 한다. 만일 대중에게 한문이라는 언어지식이 없고 우리말과 글로 재현된 번역물이 없다면 민족고전은 쓸모없는 휴지더미에 불과할 것이다.

이처럼 언어학은 한문에 대한 언어지식과 번역을 통하여 민족고전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어의 체계와 규범, 언어발전의 합법칙성을 연구 해명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 만큼 민족고전학이 대상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렇듯 민족고전학은 다른 과학 분야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고유한 연구대상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학문분야이다.

민족고전분야를 독자적인 부문과학으로 정립하는데서 나서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민족고전학의 연구방향을 옳게 정리하는 것이다.

민족고전학은 자기의 고유한 연구대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가지게 된다.

민족고전학의 연구방향은 첫째로, 민족고전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전유산들은 지난날 수난 많던 민족사와 더불어 전쟁의 참화와 외래침략자들의 약탈에 의하여 적지 않은 것이 잃어지고 해외에 흩어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단계에서 정리되어야 할 유산들이 거의 정리되지 못한 채 우리 세대에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민족고전분야 앞에 잃어지고 흩어진 고전유산들을 적극 찾아내고 발굴하는 한편 다른 문헌들에 산재해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원서를 복원하며 고전유산들에 대한 분류와 목록작성, 원문에 대한 구두, 교감 등 작업을 통하여 민족고전들을 정리하고 그 방법을 리론화 하여야 할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둘째로, 민족고전을 번역하는데서 나서는 리론 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고전은 지난날 서사생활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국문이나 국한문으로 쓰여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문으로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사정은 민족고전분야 앞에 한문으로 쓰여진 고전들을 번역하여 우리말로 된 고전으로 재현하며 번역과정에 쌓은 경험에 기초하여 번역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 번역수법, 번역방법을 모색하여 그것을 과학화, 리론화 하여야 할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로, 민족고전을 옳게 평가하고 해제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민족고전은 력대 봉건통치계급의 지배 하에서 형성되고 저자의 사회력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적거나 많거나 계급적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시대적 제한성을 면치 못한다. 이로부터 민족고전에는 계급적 편견과 시대적 조건, 민족심리와 풍속, 사유방식과 가치관념 등이 여러모로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은 오늘 계승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상 교양과 교육학적 견지에서 보면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민족고전분야 앞에 고전유산들에 대한 전면적인 심의를 진행하여 정확한 평가를 주며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각이한 형태의 서지 해제를 하여야 할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로, 민족고전의 서사수단으로 리용된 한자와 한문을 배우고 익히는데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자문제는 우리 말 속에 한자어가 많이 들어있고 남조선과 주변나라들에서 한자를 쓰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한자문제가 민족고전학 앞에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지난날의

고전유산들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물론 민족고전들을 번역하여 우리말로 옮겨 놓으면 한자와 한문을 몰라도 그것을 리용할 수 있겠지만 수 만 중에 달하는 고전유산들을 한꺼번에 다 번역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고전유산의 원전을 보고 필요한 자료들을 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한자와 한문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민족고전분야 앞에는 한자와 한문을 교육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와 학술적으로 해명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족고전학은 고전유산의 수집, 감별, 정리, 해석, 평가에서 나서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임무로 삼고 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면하게 민족고전학의 연구지표를 옹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고전학의 연구지표는 어디까지나 민족고전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

민족고전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책판의 규격, 구성요소, 장정, 활자의 모양과 배열 등 형식상의 규례가 있는 동시에 그것이 형성발전과정에 받는 계급적 및 시대적 제약에 따라 사료의 정확성, 진실성, 객관성, 등 내용상의 가치기준이 있다. 따라서 민족고전분야에서는 목록, 판본 그리고 자료의 교감, 해석, 고증 평가에 관한 학술적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제기되며 이 학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지표를 옹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전문헌의 특성과 관련하여 민족고전학의 연구분야를 크게 문헌학, 고증학, 번역학, 한문학으로 갈라볼 수 있으며 이것을 민족고전학의 연구지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족고전학의 연구지표설정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학술론쟁을 통하여 완성해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민족고전학은 인류과학사상 처음으로 개척된 학문으로서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 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와 과학의 여러 분야의 부문사 연구에 귀중한 밑천을 마련하여준다. 우리는 민족고전연구사업을 철저히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 세움으로써 민족고전학을 민족문화건설위업의 자랑스런 승리에 적극 이바지하는 과학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n Classics and Its Study

Choe, Tae-Gwon

The Korean Classics signifies the traditional literary works until the end of Chosôn Dynasty around 1910. Classics covers multi-dimension aspect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t is a pity that some Korean Classics were lost or looted by foreign invaders, and mostly written in Chinese in the past. Korean Classics deserves to be patronized by Koreans, and should be written in Korean language. Therefore we should make an efforts to collect, arrange and translate them in practical approach. If we learn Classical Chinese in real earnest, many literary works could be re-analyzed and evaluated by a wider range of readers.

Key Word

Classics, Study of Korean Classics, Practical Issues, Classical Chinese